

금리 인상에 투자자 ‘들썩’... 고객 예탁금·증시 거래대금 ↑

연준 테이퍼링 해소...투자심리 회복 외국인, 31일 하루에만 1.1조 순매수 “가을~겨울 증시 반등세 보일 것”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고객예탁금과 신용거래용자 잔고 및 증시 거래대금은 주초부터 늘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이슈가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기준 고객예탁금은 75조1675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60조원대 후반에서 70조원대를 회복하던 투자자예탁금(증시 대기자금)은 8월 19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하기 시작했다. 19일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7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거래용자 잔고 추이〉

일자	투자자예탁금 (장내파생상품 거래 제외)	신용거래용자 잔고		
		전세	유가증권	코스닥
8월 30일	707,269	248,216	135,164	113,052
8월 27일	712,843	246,763	134,366	112,396
8월 26일	641,950	244,574	133,663	110,911
8월 25일	635,856	244,542	134,148	110,394
8월 24일	688,438	245,780	134,759	111,021
8월 23일	693,895	250,676	137,488	113,188
8월 20일	696,500	251,957	138,225	113,731
8월 19일	698,762	253,656	139,150	114,506
8월 18일	708,378	256,112	140,686	115,425
8월 17일	701,231	254,712	139,367	115,345
8월 13일	719,869	250,956	137,034	113,922
8월 12일	742,016	249,558	136,007	113,550

검색기준일 : 9월 1일, 단위 : 억원

/금융투자협회

이 높이 점쳐진 날이었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거래일간 개인투자자들이 총 9561억원을 순매도 했음에도 25일 예탁금 잔고는 63조5856억원으로 떨어졌다. 24일(68만8438억원) 잔고 대비 5조 가량이 증발한 것으로, 8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

권사에게 빌리는 주식매수자금인 신용거래용자도 19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25일 24조4542억원에 머물렀다.

증시 거래대금도 8월 19일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17일

34조5124억원이었던 거래대금은 19일 29조3287억원, 23일 23조7267억원, 27일 22조453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연준 위원들이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하며 매파적 태도를 보이고 나선 후인 27일 11조원에 비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었다.

위축됐던 증시 대기자금은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후부터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다. 26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후, 투자자예탁금은 2거래일 연속 상승해 27일 기준 71조2843억원을 기록하며 70조원대를 회복했다. 불명확했던 기준금리 인상여부가 결정됐고, 인상 폭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대기자금이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시 거래대금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1일 전체 시장 거래대금은 29조4979억원으로 27일 대비 7조여원 늘어났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도 15조8636억원으로 5조여원 늘어났다. 27일(현지시간)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성급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가능성과는 거리를 두면서 시장의 테이퍼링 우려가 해소된 후다. 특히 31일엔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에만 1조1229억원어치를 순매수 하면서 증시의 회복을 이끌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원 넘게 순매수한 건 지난 3월 11일(1조7080억원)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등 기회가 있던 평가가 나온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가)기간조정을 통해서 악재를 반영했고, 과거 수준의 P/E(주가수익비율) 되돌림이 나온 상태”라며 “테이퍼링 우려는 금리 인상이 떨어진 인식으로 전환될 거고, 각국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가을과 겨울엔 증시가 반등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조정을 겪은 뒤 기술적 반등 중”이라면서도 “단기에 기술적 반등 목표치(3200포인트)를 넘어설 만한 동력이 강하진 않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낙폭과대주들의 단기 반등 이후 박스권 하 개별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도입

발행회사 자금조달 부담 완화 “2.7조 자금유동성 절감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이 9월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의 지속적 증가로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상시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기존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한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의 ETN 상장폐지 요건 완화 조치 이후 ETN의 자진 상장폐지(조기종료) 증가로 ETN



상환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상환 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의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 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재지급되는데,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 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년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차감결제 프로세스가 도입되면,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 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 및 유동성리스크가 대폭 완화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1일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삼성자산운용 메타버스 기반 웹세미나 개최

메타버스 시장 전망, 펀드 소개

삼성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을 활용해 웹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웹세미나는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펀드 비교 플랫폼인 ‘펀드솔루션’ 우수회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메타버스 기반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ifland(이프랜드)’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웹세미나에는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운용중인 최병근 매니저가 직접 나와 메타버스 시장 전망과 펀드를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회원들은 “비대면이 일상화가 된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에 신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송상윤 디지털마케팅 팀장은 “이번 웹세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



삼성자산운용은 ifland에서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 웹 세미나를 진행했다. /삼성자산운용

촉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서 진행했다”며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해 향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8일 설정된 삼성글로벌메타버스 펀드는 출시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2개월만에 설정액 610억원을 돌파한 후 4.4%의 양호한 수익률(에프앤가이드 8월31일 기준)을 기록하는 중이다. /양유경 기자

한화투자증권 ‘STEPS’ 주식 매매 기능 강화

자산, 보유·관심 종목 한 눈에

한화투자증권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TEPS(스텝스)’를 주식 매매하기 쉬운 앱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했다고 1일 밝혔다.

STEPS는 2017년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간편투자 앱’으로 개발됐다. 이후 글로벌 투자정보 콘텐츠와 검색 기능을 강화한 ‘투자정보 앱’, 금융상품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 앱’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주식투자 앱’으로서 투자자들이 주식매매 시 화면은 간결하게 보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투자자들이 자주 조회하는 정보인 자산 및 보유·관심 종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배치했다. 종목 현재가 화면도 한 화면에서 차트와 호가, 기업 정보 및 관련 뉴스를 스크롤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식 매매가 보다 편리해졌다.

시장 정보는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컬러와 그래픽을 활용했다.

투자수익률과 벤치마크를 비교해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매겨진 형태의 리서치 리포트도 제공한다. /양유경 기자

한국투자증권

뱅크스 고객 해외주식 증정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30일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해외주식 신규 고객 및 올해 해외주식 거래이력이 없는 휴먼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참여 신청 후 해외주식을 거래하면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4종목(DHY·ICLN·GM·나이키)의 주식을 추첨해 지급한다.

신규고객의 경우 거래가 없더라도 추첨을 통해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집계한 7월 순매수결제 상위 50종목 중 1주를 총 50명에게 제공한다. /양유경 기자

신한금투 “영업점서 세무 상담 받으세요”

‘텍스 컨설팅 데이’ 실시

신한금융투자는 각 영업점에서 세무전문가가 세무 상담을 해 주는 ‘텍스 컨설팅 데이(Tax Consulting Day)’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도곡금융센터, 송파, 대구 지점을 시작으로 각 영업점에 세무전문가가 상주해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다양한 고객매칭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인원이 모이기 힘든 시기인 만큼 가족, 동종업

종 종사자 등의 소규모(3~4인) 그룹별 세무 세미나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 부장은 “최근 다양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렵고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줌으로써 고객의 자산관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Tax Consulting Day’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양유경 기자